

부산체육 토크톡

November 2020 VOL.09



사람과 사람

내 심장에 운명처럼 찾아온 자전거!

부산체육고등학교 자전거부 이찬영 선수



스포츠 센터 info

47년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 최초의 실탄사격장

부산광역시종합사격장



스포츠 뉴스

- 2020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실기교육 개최
- 2020 부산체육 진흥 세미나

스포츠 토크 - 자전거



무한 질주 본능!
두 바퀴의 행복, 자전거의 세계

교육 토크 - 스포츠 관련 직업




Health & Leisure 관심 Up!
스포츠 관련 직업도 Up!

사람과 사람



내 심장에 운명처럼 찾아온 자전거!

 부산체육고등학교 자전거부
이찬영 선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전거 인구에 비해 한국에서 자전거는 비인기 종목인 게 현실, 마냥 자전거가 좋아 시작한 이찬영 선수에게 자전거가 비인기 종목이라는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다부진 체격에 단호한 눈빛이 인상적이던 이 선수,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즐기는 한국 자전거계를 이끌 신예(新銳), 이찬영 선수를 만났다.

자전거는 내 운명, 자전거 예찬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과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위치한 삼락체육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우연찮게 전문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본 이찬영 선수, 그 순간 가슴이 뛰었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자전거 타는 걸 유독 좋아한 이 선수, 일반 자전거와 생김새는 약간 달라 보였지만 왠지 경기용 자전거도 잘 탈 것만 같았다고. 중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생각이 계속 났고 사하중학교 자전거부 전창훈 감독으로부터 테스트를 본 이 선수, 사하중학교 자전거부에 당당히 입부한다. 이후 부산체육고등학교로 진학, 자전거 선수로서의 꿈을 키워가는 중이다.



“자전거는 전신운동이에요. 페달을 밟기 때문에 하체만 튼튼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페달을 밟을 때 허벅지, 엉덩이근육, 척추기립근, 승모근, 복근은 물론 팔 운동도 돼요. 특히 오르막을 오를 때는 운동 강도가 심해 전신 근력운동이 되지요. 자전거를 오래 타면 전신이 빠근한 이유예요.”

두 바퀴에 몸을 싣고 페달을 밟으며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즐거움 때문에 자전거 선수가 됐다는 이찬영 선수, 자전거 예찬을 들려준다.

고통을 참고 끝까지 완주했을 때 찾아오는 쾌감



“매년 대회는 5번 정도 나갔어요. 매일 정규수업을 마치고 늦은 오후 6시까지 훈련을 이어갔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실내에 훈련용 롤러를 설치해놓고 훈련에 매진해요. 제일 기억에 남는 대회는 아무래도 큰 대회일 테죠. 2019년 5월 전주에서 진행된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200m와 500m에서 금메달을 받아 2관왕을 했고 최우수선수상까지 받았어요. 2020년 6월 KBS 양양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 남자고등부 단체스프린트에서도 금메달을 땀고요. 허벅지가 터질 거 같은 고통을 참고 끝까지 완주했을 때 오는 쾌감, 사이클을 타본 사람만이 아는 진짜 매력 아닐까 싶어요.”

자전거 선수들은 단거리와 장거리에 따라 안장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한다. 단거리는 짧은 시간 빠른 속도로 타야 하기 때문에 앞쪽에 안장이 있다. 엉덩이의 위치가 앞에 있을수록 몸은 앞으로 쏠리고 그 래야만 폭발적인 힘을 쓸 수 있다는 이 선수의 설명이 이어졌다. 훈련용 롤러 위에서 연습을 할 경우에는 앞바퀴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늘 긴장하며 훈련한다.

사람과 사람



한국 자전거계에서 한 획을 긋는 선수로 기억되길

사하중학교 자전거부를 이끌다가 현재 부산체육고등학교 자전거부를 맡게 된 전창훈 감독에게 이찬영 선수의 장점을 물었다.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찬영 선수 스스로 자전거를 무척 즐기는 터라 쉽게 매너리즘이나 슬럼프에 빠지는 일이 없더라고요. 훈련을 할 때마다 주도적으로 참여하니 실력도 당연히 일취월장(日就月將)할 수밖에요. 그리고 단거리 자전거의 경우 정말 짧은 시간에 모든 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야 해요. 그만큼 멘탈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단 얘기죠.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이찬영 선수는 경기를 앞두고 크게 긴장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잘 찾는 거 같아요. 안정감이랄까, 어린 선수이지만 그런 게 느껴집니다.”

자전거의 경우 선수의 은퇴 시기는 보통 29세 가량, 이후에는 주로 경륜 선수를 하는데 마흔이 넘어서도 자기 관리만 잘 한다면 선수생활이 가능하다. 다른 스포츠에 비해 선수 생명이 긴 편에 속한다.

“자전거 선수의 길로 들어선 만큼 매 순간 후회 없이 훈련에 임하고 대회에 나갈 생각이예요.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과정을 중요시하는 자세로 하루하루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자전거계에서 제 이름 석 자만 들으면 다 알 만큼 한 획을 긋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어요.”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고 묵묵하게 현재에 충실하겠다는 이찬영 선수의 굳건한 의지가 그의 눈빛에 고스란히 담겼다.



주요 수상 내역

- 2020년 제4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사이클대회 남자고등부 독주경기(1km) 금메달
- 2020년 2020KBS양양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 남자고등부 단체스프린트 금메달
- 2019년 2019KBS양양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 남자중등부 독주경기(500m) 금메달
- 2019년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남자중등부 독주경기(500m) 금메달
- 2019년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남자중등부 200m기록 금메달

C Y C L E



스포츠센터 info



47년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 최초의 실탄사격장

부산광역시종합사격장



멘탈 스포츠로 대명사로 불리는 사격, 과녁을 향해 집중하는 10초 정도의 짧은 순간 느끼는 짜릿함과 정중앙을 맞혔을 때의 쾌감은 사격을 해 본 사람만이 안다. 부산의 명소인 영도 태종대공원을 경유하는 인접지에 위치한 부산광역시종합사격장은 부산 최초의 실탄 사격장이다. 사격장 뒤로는 봉래산 자락과 앞으로는 탁 트인 바다가 조화를 이루며 절경을 자랑한다. 지난 47년 동안 이곳에서 사격선수들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저마다의 꿈을 향해 질주했다. 한국 사격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부산광역시종합사격장을 찾았다.

☑ 상시 혹은 수시로 훈련 중인 40여 명의 사격선수들

건물 1층에는 안내데스크 겸 실탄과 총을 보관하는 사무실과 일반인들이 사격체험을 맞볼 수 있는 관광사격장이 2층에는 30개의 사대를 갖춘 실내 10m 공기총 사격선수 훈련장이 있다. 건물 밖에는 부지 4,860㎡에 50m 실탄사격장을 갖춰 놓고 부산사격대표팀의 훈련장과 사격대회 경기장으로 이용 중이다. 중·고등부와 대학부, 부산광역시청과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과 부산장애인사격연맹 등 40여 명의 사격선수들이 상시 혹은 수시로 훈련 중이다.

1973년 설립돼 올해 47년차를 맞은 부산광역시종합사격장은 매년 건물 안전진단을 받고 2년마다 페인트칠과 같은 보수를 꼼꼼히 해온 터라 오랜 역사를 지닌 건물임에도 관리가 잘 돼 있었다. 오전 9시에 문을 열어 저녁 8시에 닫는 이곳에서 짧게는 3시간에서 길게는 7시간 이상씩 사격 훈련에 혼신을 다하는 선수들, 그들 중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국가대표 사격선수 '사격의 신'이라 불리는 진중오 선수와 김장미 선수 역시 이곳에서 훈련했었다.



☑ 사격선수들의 진심과 열심, 눈물과 기쁨을 품은 열정 훈련장



사격장의 특성상 허가가 나기까지 다른 시설에 비해 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편인데 총기와 실탄을 다루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총을 쏠 때 소음이 발생하다 보니 주변에 민가가 없어야 하고 그래서인지 다른 지역을 봐도 사격장 위치가 산 속과 같은 외진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최근 지어진 사격장에 비하면 규모나 시설 면에서 최신식은 아니지만 국제대회를 앞둔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다. 부산 사격선수들이 저마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사격훈련장으로 부산광역시종합사격장은 제 몫을 톡톡히 해 왔다.

부산광역시종합사격장은 부산광역시사업소에서 나온 주무관 1명과 청원경찰 4명이 교대로 총과 실탄을 관리하며 근무 중이다. 지난 47년간 목표한 꿈에 한발 더 다가가려고 부단히 애써온 사격선수들의 눈물과 땀방울이 고스란히 축적돼 있는 부산광역시종합사격장은 앞으로도 그들의 진심과 열심을 고스란히 품은 열정의 훈련장으로 불릴 테다.

스포츠 톡



무한 질주 본능! 두 바퀴의 행복, 자전거의 세계



자기 체력에 알맞게 운동의 힘과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자전거 타기, 자전거를 타면 산소 소비량이 많아져 심폐기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리듬을 타며 운동하게 되므로 정신건강에 좋다. 또 체중에 별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맥박도 적당히 조절하며 운동할 수 있어 특이체질을 가진 사람들도 안전하게 즐기며 운동할 수 있다. 그밖에도 칼로리 소비량이 많아 비만 방지에도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적당히 풀어주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한몫을 한다. 두 바퀴에 몸을 싣고 페달을 힘껏 밟아보자. 상쾌한 바람결에 만끽하는 자유에 건강은 덤이다.

인류 자전거의 시초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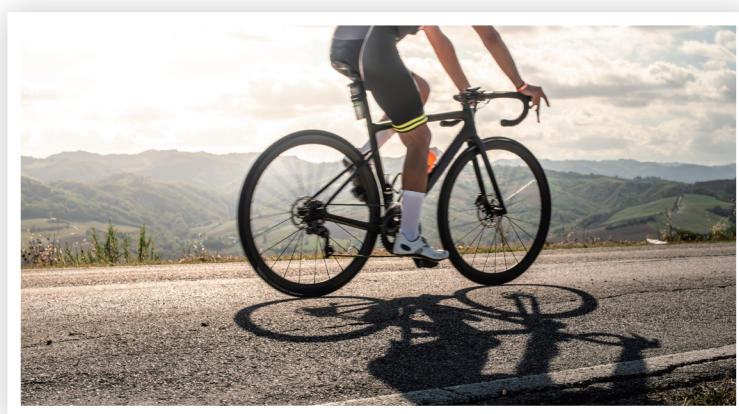
인류가 바퀴를 이용해 생활에 편익을 가져온 것은 기원전, 자전거의 형태가 나타난 것은 19세기이다. 1790년 자전거의 원형을 최초로 고안해 낸 사람은 프랑스의 '콩트 드 시브락 백작'으로 목재 수레바퀴와 두 개의 수직 자루를 만들고, 이것을 횡목으로 연결해 자전거 형태를 만들었다. 이때의 이론차는 '빨리 달릴 수 있는 기계(셀레리페르 : Celerifere)'라고 불리게 되었다. 또한 1818년 독일의 칼 바론 폰 드라이스가 발명한 자전거(드라이지네 : Draisine)도 현재의 자전거와는 거리가 멀지만, 그것의 최고속도는 15km였다고 한다. 그 후 1839년 스코틀랜드의 맥밀란이 자전거 동력장치인 페달과 크랭크를 개발했다. 1885년 영국의 제임스 스탈레이가 앞뒤 바퀴의 크기가 똑같고 체인 구동식인 지금의 형태에 가까운 현대형 자전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자전거는 실용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교통수단으로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의 자전거에 이르렀다.

자전거경기와 올림픽 종목



자전거가 운동수단으로 도로경기를 가졌던 것은 1869년 프랑스 파리 와 루엔을 잇는 도로경기가 처음이다. 그 후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제 1회 선수권대회 이후, 올림픽에서는 제1회 아테네올림픽대회를 제외하고 줄곧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왔다. 또 아시아경기대회도 제2회 마닐라대회에서만 자전거 경기종목이 제외되고 제3회 동경대회부터 부활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전거 종목은 유럽에서 발달해 현재 160여 개국의 국제사이클연맹(UCI, Union Cycliste Internationale)의 회원국이 있으며, 역대 올림픽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옛 동독, 옛 소련 등이 강세를 나타냈으며 최근 프랑스의 초강세 속에 호주가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시아경기대회는 일본의 트랙, 한국의 도로 종목의 강세로 양분했으나 최근에는 옛 소련에서 분리된 카자흐스탄의 도로, 일본의 트랙 단거리, 한국의 트랙 중장거리, 중국의 여자종목 석권 등으로 4분화 된 추세이다. 올림픽의 자전거 종목은 1980년 모스크바대회까지 6~7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오다가, 1984년 LA올

림픽대회에서 여자 개인 도로경기가 추가, 1988년 서울림픽에서 여자 스프린트 추가,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여자 3km 개인추발 추가,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에서는 여자 포인트 경기, 도로독주와 MTB 크로스컨트리 남, 여 종목 등 4개 종목이 추가돼 총 14개 종목으로 시행되다가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는 올림픽스프린트, 경륜경기 매디슨 경기, 여자 500m 독주 등 4개 종목이 추가돼 총 18개 종목이 실시되었다. 그러다가 2008년 북경올림픽에서 남자 1km 독주와 여자 500m 독주 경기가 없어지고 남녀 BMX 경기가 추가되어 현재 22개 종목이 있다. 자전거는 육상, 수영, 사격 등을 몇 몇 종목을 제외하고 메달이 가장 많은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될 것이다.



국내 사이클 도입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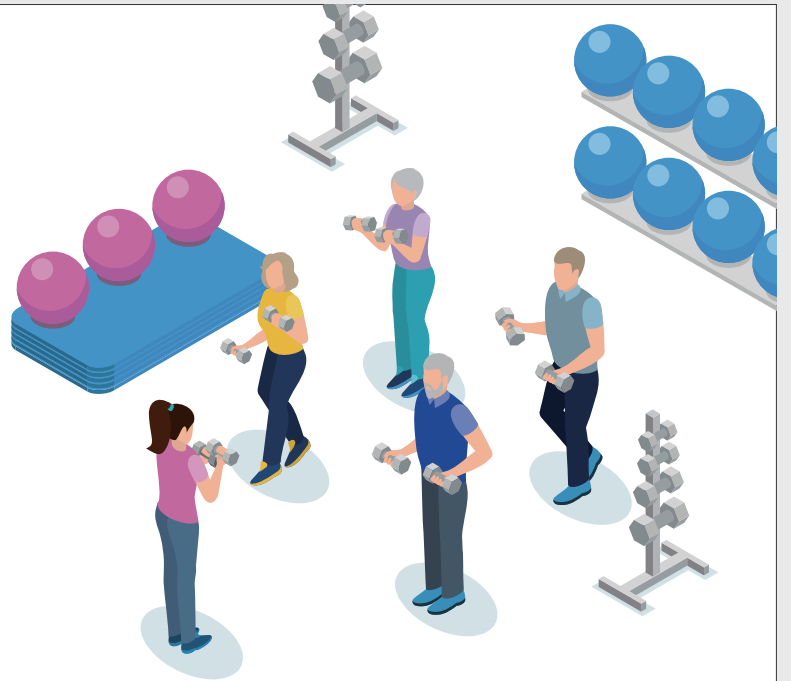


한국에 자전거가 언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지는 확실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다만 20세기를 전후한 개화시대일 것이라고 추측되고 서양의 선교사나 개화파 인사들이 처음 들여왔으리라 생각될 뿐이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도입의 역사는 1896년 서재필 박사가 독립문 공사 현장에 갈 때 처음으로 탔다는 설도 있고, 같은 해 고희성이 자전거를 탄 것이 처음이라 하기도 한다. 그 후 1898년 윤치호 선생이 하와이로부터 통타이어를 사용한 자전거를 도입해 왔다고 한다. 1950년대 후반부터 자전거가 생산돼 점차적으로 늘어난 자전거는 1960~1970년 사이에는 실용적인 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는 경기 그리고 레저용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교육 톡



Health & Leisure 관심 Up! 스포츠 관련 직업도 Up!



스포츠 관련 직업으로 진출하려는 사람은 운동하기를 좋아하고 스포츠 관련 학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스포츠 관련학을 전공하려면 각종 운동 종목을 습득할 수 있는 운동 자질이 있어야 하며 훈련을 감당해낼 체력도 필요하다. 현대인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과 여가 시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급부상 중인 스포츠 관련 다양한 직업을 들여다본다.

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해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격취득 방법과 조건

- 만 18세 이상
- 필기 - 실기 및 구술 - 연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필수(1) - 노인체육론
선택(4)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위 과목 중 5개의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면 된다. 하지만 다른 생활 / 전문 스포츠지도사와 다르게 필기시험 필수 과목으로 '노인체육론'을 포함한 5개 과목 선택으로 이뤄진다. 합격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단일과목이 40점 이하인 과목이 있을 경우 불합격하게 된다. 이러한 과목을 통한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와 구술면접이 이루어지며 선택종목에 맞게 시험이 이루어진다. 실기시험은 각 종목에 맞춘 시험이 이루어지며 7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모든 시험을 합격한 후 연수는 수도권, 경상, 충청, 전라, 강원 권역별로 이뤄지며 합격 후 3년 이내에 66시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현장실습과정 역시 이루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체육지도자연수원 홈페이지 (<https://www.insports.or.kr>)를 참고하면 된다. 경상은 부산 신라대학교에서 진행된다.

노인스포츠지도사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그라운드골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키,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팅,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철인3종경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노인스포츠지도사의 미래

UN에서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로 명명하고 있다. 2019년 대한민국은 국민의 7.3% 이상이 65세 이상 연령으로 이루어져 있고, 2030년에는 그 비율이 20%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된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노인스포츠지도사는 각광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존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으로 양분화 돼 있던 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과 종류를 지도 내용과 지도 대상, 분야 및 수준 등 기준으로 세분화해서 노인스포츠지도사에게도 기회가 생기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노인 복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년의 건강을 지키고 제2의 인생을 위해 활력을 찾아줄 직업이다. 노인 체육 분야는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경영관리사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스포츠경영관리사 시험에 합격해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스포츠경영관리사 자격제도는 스포츠경영관리 분야에서의 올바른 직무활동을 위해 스포츠경영관리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05년에 신설되었다.

자격취득 방법과 조건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필기 - 실기로 구성되어 있다.
스포츠산업론, 스포츠경영론, 스포츠마케팅론, 스포츠시설론
필기시험은 위 4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진다. 합격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단일과목이 40점 미만인 과목이 있을 경우 불합격하게 된다. 이러한 과목을 통한 필기시험 합격 후 스포츠마케팅 및 스포츠시설경영 실무에 대한 실기시험으로 진행된다. 스포츠용품 제작, 스포츠시설 개발, 스포츠 이벤트, 스포츠 라이선싱, 스포츠정보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한 주제를 갖고 주관식 필기형식으로 출제된다. 실기 시험은 60점 이상 취득해야 합격한다. 만약 실기시험에 불합격한다고

해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스포츠경영관리사는 다른 지도자 종목과 달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http://www.q-net.or.kr>)'을 참고하자.

스포츠경영관리사의 미래

현대의 체육 관련 직업분야는 지도자로 국한되지 않는다. 체육에 대해 전문적인 사람과 행정 및 경영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어렵다. 지도자를 수용하기 위한 공공기관 종합체육시설, 프로스포츠 구단, 각종 경기단체, 일반 기업체 중 스포츠와 관련된 기업, 교육기관 등에서는 다양한 직종을 원하는데 그 중 스포츠와 행정 그리고 경영에 둘 다 전문성을 가진 스포츠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NCS(국가직무능력표준)시험이 전면 확대가 돼 스포츠경영 관련 과목이 다뤄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스포츠경영관리사의 역량을 키운다면 앞으로 스포츠와 관련된 직업에서 폭넓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스포츠 뉴스



SPORTS
NEWS

01

2020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실기교육 개최

16개 구·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117명
(일반지도자 73명, 어르신
지도자 44명) 참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에 팔을 걷어 붙였다. 부산광역시 체육회는 지난 10월 14일(수)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에서 체육계폭력재발방지 및 인권호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환경 조성 및 실기교육을 통한 지도자 역량 향상을 목표로 2020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실기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117명이 참석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스포츠 인권교육, 뉴스포츠 관련 실기교육, 지도자 행정교육 등을 실시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연차별로 분반해 간담회도 실시했다.

부산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우리 모두 건전하고 공정한 체육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고 당부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장에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연기되고 움츠려든 일상생활에 생활체육지도자를 교육함으로써 부산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을 설 계획이다.



스포츠 뉴스



SPORTS
NEWS

02

2020 부산체육 진흥 세미나
다시 날자 부산체육 RESTART!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1월 13일(금) 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다시 날자 부산체육! RESTART!’ 라는 주제로 ‘2020 부산체육 진흥 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안민석 국회의원 외 체육회 임원, 위원회, 구·군 체육회, 실업팀, 좌장·발제자·토론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안민석 국회의원의 ‘지방체육이 나아가길’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과 섹션1에서 융·복합 시대의 학교·생활·전문체육발전의 육성방안과 섹션2에서 미래 성장 동력인 부산해양레포츠 발전방안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부산체육의 현 지표 진단,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열띤 논의 이어져

‘2020 부산체육 진흥 세미나’는 코로나19 이후 체육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에 체육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체육의 선제 대응하며 부산체육의 나아가길 방향과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각 섹션에 앞선 기조연설에서 안민석 국회의원은 체육단체의 통합에 대한 의견을 펼쳤다.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등록 선수들의 확대를 통해 전문체육선수가 고갈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섹션1에서 ‘융·복합시대 학교·생활·전문체육발전의 육성방안’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좌장은 한국해양대학교 김태만 교수가 맡았고 발제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희 선임연구원, 토론자는 부산광역시의회 제대욱 의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손승우 장학관, 동서대학교 김성겸 교수, 수영구국민체육센터 황경현 회장으로 구성되었다. 발제자 김대희 선임연구원은 체육활동의 지속을 위해 법, 제도, 정책이 우선되고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조성을 위해 학교생활·전문체육의 현황과 선진사례를 통해 융·복합시대에 학교·생활·전문체육 연계 발전 방안으로 지방체육의 역할인 지역 스포츠클럽 운영, 선수 수급체계 개선 등을 통해 육성·발전 방안을 제시해 나아가야 한다고 발제했다.

이어 섹션2에서 미래 성장 동력 부산해양레포츠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으로 부산광역시 송순임 카누연맹 회장, 발제자는 한국해양대학교 이재형 교수, 토론자는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정성기 단장, 부산일보 스포츠팀 김진성 팀장, 부경대학교 양위주 교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미옥 선임연구원으로 구성되었다. 발제자 이재형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양레포츠의 현황과 실태 및 선진국 사례를 통해 부산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레저산업 제도개선,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 조성, 교육 및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의 중요성 과제를 통해 해양레저 산업기반이 우선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제했다. 발제 후 토론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 시설과 메가이벤트의 연계적인 부분과 상승효과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2020 부산체육 진흥 세미나를 통해 현재 부산체육의 지표를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갖고 문제점과 의견을 잘 모아가면서 해결방안을 찾고 긍정적인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무거운 분위기였던 부산체육이 다시 비상하기를 기대해본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체육회’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세미나 영상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